

저수지 야경 보러 뱃놀이 가잔다~♪

유·도선 야간운행으로
불 밝힌 지역관광!

여름밤 저수지의 낭만... 그 뒤엔 규제개혁이?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에 위치한 수성유원지. 볼거리도 즐길거리도 많은 곳이라 해질 무렵에도 나들이 나온 방문객들이 눈에 띈다. 이 곳은 수성못 주변에 자리한 유람선 선착장과 편의시설, 그리고 바이킹, 범퍼카, 회전목마 등의 놀이시설을 갖춘 수성랜드가 어우러져 유원지를 형성한 곳입니다. 특히 연인들과 가족들에게 인기 만점인 유람선과 오리배는 수성못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습니다.

날이 점차 어둑해지고 유원지 곳곳에 조명이 켜지면 수성못은 더욱 매력적인 장소로 변신합니다. 노란 불빛으로 꾸민 배가 저수지를 오가는 밤 풍경은 더할 나위 없이 낭만적이지요, 오리배에 몸을 싣고 야간의 저수지를 가로지르는 연인들의 달콤한 데이트, 이는 규제개혁 덕분에 가능한 풍경입니다. 해가 지면 운행할 수 없던 유람선과 오리배가 일몰 후에도 운영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리배가 떠 다니는 대구 수성저수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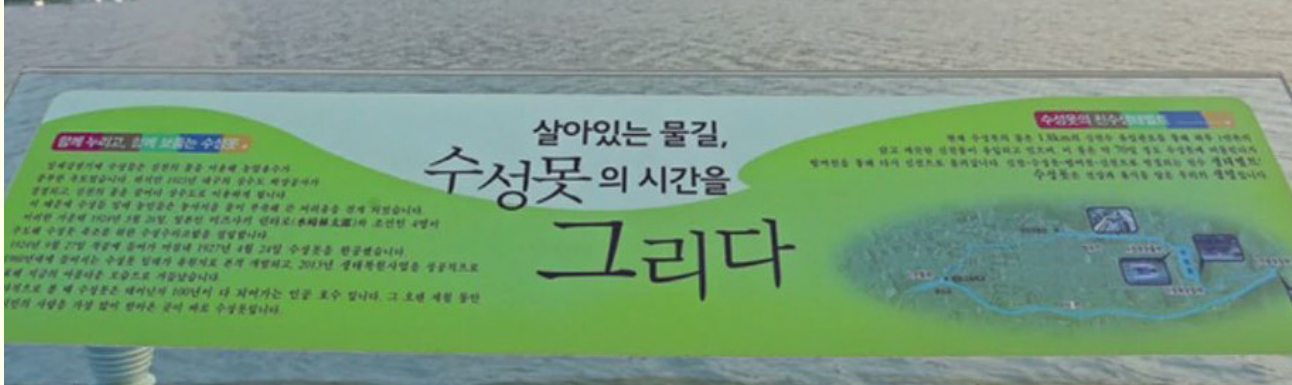


규제개혁으로 야간 운행이 가능해진 수성못 오리배

동업용 저수지에서 도심 속 관광명소로... 수성못의 변화

수성못은 1925년 가뭄과 홍수로 인해 황폐한 수성들판에 농업용수를 모으기 위한 저수지로 계획됐습니다. 그러나 1994년 지산범물동 택지개발과 도시화 진행에 따라 저수 기능을 상실하고 자연스레 수변공원으로 변신했지요. 지금의 수성못은 더이상 농촌 한 복판에 놓인 저수지가 아닙니다. 고층아파트가 올라다 보이고 차량교통이 붐비는 도심 속 대표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4월 대구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개통 이후 수성못을 찾는 시민들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성구는 이곳을 야간명소화 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규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농업용도에 필요한 저수지란 이유로 수성못 안에서 야간 레저업 등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었던 것입니다.



공원과 산책로, 카페 등이 들어선 현재의 수성못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 지자체-정부가 함께 풀다

수성못에서 유·도선 사업 낙찰을 받은 수성레이크보트의 박덕 대표 역시 규제로 인해 답답하던 마친가지 않습니다. “한 여름엔 누가 낚시간 땡벌아래 배를 타겠어요, 여름밤에 나들이 나오는 방문객들이 많은데, 야간엔 손님을 받을 수 없으니 답답했습니다. 다른 관광지를 찾아보면 야간에도 배를 운행하는 곳이 많은데, 여기 수성못에선 못한다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죠.” 박 대표의 말입니다.



수성레이크보트가 운영하는 수성못 선착장 풍경

이런 애로사항이 있던 건 수성못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야간운행에 필요한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 야간에도 유람선 및 도선(渡船, 단거리 교통 선박) 운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명시하고 있지만,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에는 일몰 이후 유·도선을 운행할 수 없다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지침에 따라 야간에 유람선 및 오리배를 운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젠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상실한 도심 속 명소의 관광사업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에 부딪힌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박 대표는 지자체에 꾸준히 애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수성구 역시 규제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관련기관에 전했습니다. 1년여 동안 규제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을 방문해

규제현장의 고충 해결을 위해 지자체 - 정부가 함께 나서다



수성못에서 운행되는 야간 유람선

그 결과 지난 2016년 2월 29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의 사용 지침’이 개정되며 야간 야간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안전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엔 야간 유·도선 운행이 허용됐습니다. 덕분에 수성레이크보트는 야간에 오리배 28척과 10인승 유람선 2척을 지난 4월부터 운항 중입니다.

“기존엔 농업용으로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농업용 저수지에서 유선을 운행할 수 있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일몰 전까지만 운행하도록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 휴식공간으로 확고히 자리잡은 수성못처럼 도시화가 진행된 곳에선 이 것이 과도한 규제라는 현장의 건의에 공감하여 적극 규제완화에 나섰지요.” 농림축산식품부 서은희 사무관의 말입니다. 농식품부는 그 동안 농업용도로만 인식됐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레저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국민 관심사가 높아지는 만큼, 본래의 농업용도 활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민안전과 관광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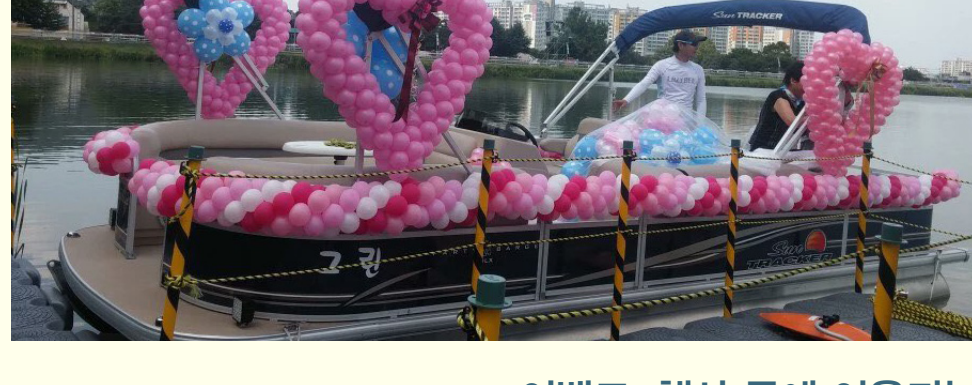
전국의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에서 유·도선의 야간운행을 가능하게 한 이번 수성못 규제 완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사업에 기여하는 규제개선의 모범사례입니다.

수성못을 찾는 가족단위 나들이코스,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낭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2016 대구·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적극 어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어떤 경제적 효과도 국민 안전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모범사례'라 부를 수 없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도선의 야간운행을 허용함에 있어 필요한 안전 설비와 장비를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수성못의 경우 지자체가 나서서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울였기에, 야간 운행이 허용된 것이죠.” 농림축산식품부 서은희 사무관은 이번 규제개선에서 무엇보다 우선시 된 것은 국민 안전이라 강조했습니다.

국민안전과 관광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수성못은 볼거리가 참 많은 곳이지요. 특히 최근 새롭게 단장되며 가족과 연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파티보트 유람선이 젊은 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파티보트가 수성못을 더욱 멋진 빛나게 하길 바랍니다” 수성레이크보트 박덕 대표의 말에는 대구의 대표명소 수성못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이벤트, 행사 등에 이용되는 수성레이크의 파티보트 유람선

박 대표가 말하는 파티보트는 화려한 수성못의 야경을 배경으로 유람선 위에서 프로포즈, 생일 파티 등 각종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배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쁘게 치장된 파티보트가 저수지 위를 떠다니는 모습은 참으로 이색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연인들과 친구들이 수성못에서 경험한 청춘의 감동과 파티의 추억을 간직할까요. 이런 감동과 추억 역시 규제개혁이 덤으로 거둔 성과인 셈입니다.

수성못은 끊임없이 진화 중입니다. 파티보트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거듭나는 조정, 이에 따라 활성화되는 주변 상권... 이번 규제개선을 계기로 수성못 주변에 또 어떤 무궁무진한 변화가 펼쳐질지 기대해 봅니다.

개선전

• 저수지 유선운행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

개선후

야간운행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야간 유선운행 허용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의 사용 지침(2016. 2. 29.) 및 시행(2016. 2. 29)

Interview

수성레이크 대표 박덕

“야간 유람선과 도선 운영 허용으로 수성못을 찾는 관광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쁩니다. 2016년 대구·경북 방문의 해를 맞이해 외국인 관광객도 찾아올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